



경륜 강자들이 출출동하는 '20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경륜'이 27일 광명 스피돔에서 개막한다. 올해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보인 정종진이 경륜 역사상 처음으로 '그랑프리 4연패'를 달성할 자가 최대 관심 포인트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킹' 정종진, 사상 첫 그랑프리 4연패 도전

올해부터 예선·준결승 추가 변수 정종진, 승률 94%·18연승 질주 왕중왕 황인혁이 최대 경쟁 상대

경륜 최고의 별들이 출출동하는 '20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경륜'이 27일부터 29일까지 광명 스피돔에서 열린다. 지난해까지는 1년 성적을 합산해 그랑프리 포인트 최상위 7명이 대회 마지막 날 단판 대결을 벌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금요 예선, 토요일 준결승, 일요일 결승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요일 예선은 매 경주 시드 배정을 받는 강자들의 활약 속에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만 토요일, 일요일 경주부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예상된다.

그랑프리를 3연패한 정종진(21기)은 올해에도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 비록 광명 16회차 결승, 20회차 결승, 왕중

왕전에서 각각 이현구, 성낙송, 황인혁 등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긴 했으나, 총 48경기 출전해 우승 45회(승률 94%)의 독보적 활약을 펼쳤다. 스포츠서울배 대상 경륜, 일간스포츠배 대상 경륜, 부산시장배 특별 경륜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현재 18연승을 기록 중이다. 정종진이 이번이 그랑프리까지 제패하면 '경륜 전설' 조호성(2005~2007년 그랑프리 3연패)을 넘어 경륜 역사상 첫 그랑프리 4연패를 기록한다.

스포츠조선배 대상경륜, 왕중왕전 우승 주인공 황인혁(21기)은 정종진의 신기록 달성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지난해까지 선행 일변도 작전으로 큰 경기에 약한 모습이었지만, 상반기 왕중왕전에서 정종진의 기습을 재빠르게 추주한 후 추입까지 연결시키며 전전후 강자로 거듭나고 있다. 정종진과 똑같이 45회 우승을 기록하고 있어 그랑프리 우승과 다승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

정종진



는 절호의 기회다.

광명 20회차 결승에서 정종진을 6위로 밀어내고 우승한 성낙송(21기)도 '이번에는'을 외치고 있다. 올 시즌 대상경륜 무관해 그치며 연대세력 부족이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실력 자체는 정종진, 황인혁에게 크게 뒤질 것이 없다는 평가다. 2015년 그랑프리 우승자 박용범(18기), 2014년 그랑프리 우승자

이현구(16기) 등이 견제함을 보여 둘 중에 한 명 이상만 결승에 올라도 성낙송에게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동서울팀 듀오 정하늘(21기)과 신은섭(18기)도 있다. 2년 연속 정종진 마크로 준우승을 차지했던 신은섭은 이번에도 서울체고 후배인 정종진을 마크하는 작전을 펼칠 수 있지만, 팀 후배 정하늘과 호흡을 맞추는 변칙작전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서울팀 정해민(22기)도 준결승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다크호스로 꼽힌다.

예상지 '경륜박사' 박진수 팀장은 "정종진이 범수도권 선수들을 규합해 전무후무한 그랑프리 4연패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황인혁, 정하늘, 신은섭은 경쟁자로 돌변할 수도 있다"며 "김포팀 선배이면서 내년 시즌 슈퍼특선급으로 승급하는 황승호가 결승에 안착하면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륜-자전거연맹 '올림픽 메달' 협력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대한자전거연맹과 19일 '올림픽 메달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앞으로 공단은 경륜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 지원과 UCI 트랙팀 선발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은 UCI 트랙팀 선발 및 훈련과 경륜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베테랑 이태희, 그랑프리 경정 우승



이태희

이태희(1기, A1)가 19일 열린 '20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경정'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8년 만에 생애 첫 그랑프리 경정 우승이다. 결승에 3코스로

출전한 이태희는 0.15초의 빠른 스타트와 한 템포 빠른 휘감기로 승기를 잡아 여유있게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2코스로 출전한 기광서(11기, A1)는 이태희에게 휘감기를 허용했지만 침착하게 턴 마크를 지키는 짜르기 선회로 2위에 올랐다. 5코스의 박설희(3기, A1)는 소개항주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아깝게 3위로 입상했다.

경정 다승왕 유력 심상철, 상금왕도 역전할까

올해 마지막 경정 25·26일 개최 상금 선두 이태희와 1092만원차

2019년 시즌 마지막 경정 49회차(25~26일)에서 올해의 다승왕과 상금왕 주인공이 가려진다.

현재 다승은 심상철(41승)이 2위와 6승차 선두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출주 횟수 총 76회 중 1차 41회, 2차 14회, 3차 9회

로 54%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성적도 1위(평균착순점 8.04)다. 그 뒤를 이어 김종민(35승)과 조성인(33승), 김완석(33승), 유석현(32승), 이태희(31승)의 2위 경쟁이 치열하다.

눈에 띄는 점은 14기 신예 박원규가 올해 29승을 거두며 다승 7위에 올라 있다. 탁월한 수면 적응력과 탄탄한 기본기를 앞세워 맹활약하는 만큼 꾸준한 활약이 기대되는 유망주다.



심상철

상금왕 부문은 47회차까지만 해도 심상철(2위, 1억1942만9750원)과 유석현(3위, 1억1068만6750원)이 선두 경쟁을 벌였으나 그랑프리 대상경주가 열린 48회차에서 큰 변화가 생겼다. 그랑프리 결승전 우승 상금 3000만 원을 챙긴 이태희(1위, 1억3035만4000원)가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다.

4위 김종민(1억370만 원), 5위 서휘(1억62만9750원), 6위 이주영(1억7만8000원)까지 상금 1억 원대에 합류했다. 그랑프리 결

승에서 3위의 영광과 함께 상금 랭킹이 훌쩍 오른 기광서(7위, 9910만7000원)와 상금세의 이경섭(8위, 9699만9000원)도 마지막 회차 출전 여부에 따라 수득상금 1억 원 달성이 기대된다.

한편 올해 나온 승식별 최고 배당률은 9회차 수요일 4경주 손지영(6번 정)과 한운(4번 정)이 동반입상한 쌍승식 1397.4배와 복승식 295.1배다. 47회차 목요일 15경주 김태용(6번 정) 1차, 김종민(5번 정) 2차, 김종희(2번 정) 3차으로 쌍복승식 4434.7배와 삼쌍승식 6391.7배도 승식별 최고 배당률에 올랐다. 정용운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채용일정 확인은 필수...자소서도 미리 준비하라"

대학생들의 겨울방학이 다가왔다. 내년 상반기 채용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취준생에게 겨울방학은 매우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취업을 미리 준비할 때 우선 중요한 것은 전략이다.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부분을 준비했는지' 등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희망하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단계로 이외에도 희망하는 기업의 대략적인 채용 일정을 확인해보는 것도 필수적이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다. 성장과정, 지원 동기, 직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입사 후 포부 등 방향 동안 기본 자기소개서를 완성시켜야 한다. 또한 성취, 실패 경험, 창의력 등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는 것도 좋다. 취업 지원 시 응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자기소개서를 준비한 뒤 희망하는 기업에 맞춘 자소서를 작성해볼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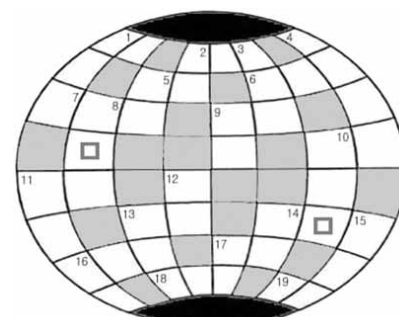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에 대한 준비도 필수적이다.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 관계자는 "대기업 인적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삼성직무적성검사인 GSAT부터 풀어볼 것"을 추천했다. 책 한 권을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각 문제에 대한 꼼꼼한 학습을 한다면 다양한 유형의 인적성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다.

에듀윌은 2020년 삼성그룹 채용 대비 '2020 에듀윌 GSAT 삼성직무적성검사 최신 기출 유형+실전 모의고사 4회'를 출간한 가운데 'GSAT 합격 서포터즈'를 모집 중이다. GSAT 합격 서포터즈 신청은 에듀윌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겨울방학 대기업 채용 대비 전략

강주현의 퍼즐월드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1.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02. 장수가 올라서서 지휘할 수 있도록 산성의 서쪽에 높이 만들어 놓은 대. 05. 주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열차 따위가 달림. 06. 영풍하게 단전을 부리는 태도를 속되게 이르는 말. 07. 인삼의 잔뿌리를 넣어 달인 차. 09. 새나 일부 짐승의 주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를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라 이름이 됩니다.

